

소확행의 길을 따라, 착한도시로 향하다

자치CEO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표현은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에세이 ‘랑겔한스섬의 오후’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처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즐거움을 의미하는 이 개념은 시간이 지나며 많은 이들에게 공감대를 얻었다. 단순히 큰 성취나 특별한 일이 아닌, 소소한 만족을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 철학은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 사회와 정책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광주 서구는 주민들의 투표로 가장 주목받은 정책들을 선정한 ‘서구 소곳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흥미로운 점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화려한 프로젝트보다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변화와 편리함이 높은 순위에서 올랐다는 것이다.

1위를 차지한 ‘공유주차장’은 학교, 교회, 아파트의 주차장을 개방해 190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며 저예산으로 높은 효율을 달성한 대표 정책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위 ‘바르문자하랑계’는 민원 접수 후 48시간 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며 친절 행정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3위 ‘천원국시’는 저렴한 가격에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며, 일자리 창출과 우리밀 소비 촉진, 지역 상생이라는 1석 3조 효과를 거둬 많

은 사랑을 받았다. 이어 ‘맨발로 조성’, ‘도심 속 생활공원 조성’이 각각 순위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주민들은 크고 멀리 있는 변화보다 가까운 일상 속 ‘소확행’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점이다.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며,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가는 정책들이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광주 서구가 지향하는 ‘착한도시’의 비전과도 일치한다. 착한도시란 주민의 삶을 진심으로 살피고, 불편함을 해결하며,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도시를 의미한다. 주민이 느끼는 행복과 만족은 정책의 크기나 예산 규모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작고 세심한 변화가 주민들에게 더 큰 감동과 공감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초,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계속돼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재정 확장 정책, 충격 완화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수습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이런 가운데 서구는 ‘소확행’의 의미를 확장해 ‘소상공인을 위한 확실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해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통해

경영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다.

또한 ‘장사의신’과 ‘명장성공스쿨’을 통해 지역 명장들의 성공 노하우를 소상공인들에게 전수하고 있으며, 이들이 배움을 다시 골목에 전파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상생과 성장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청이 직접 숨겨진 맛집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우리동네 골목맛집’ 사업을 통해 골목 상권에 새로운 활력도 불어넣고 있다.

올해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확대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소통 채널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반영하는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구는 소상공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은 변화와 세심한 지원을 통해 ‘소확행’의 가치를 실현하는 착한도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 모든 노력은 서구가 ‘소확행’의 길을 따라 착한도시로 향하는 여정을 보여준다.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상의 불편함을 덜어내며,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서구가 꿈꾸는 착한도시의 본질이다.

2025년 서구는 작은 기쁨이 모여 큰 희망이 되는 소확행의 가치를 품고 착한도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이 여정은 주민들과 함께 우뚝 서서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향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전일광장 박안수 남광주농협 사외이사·경제학박사



말(言)과 언어(言語)에 대한 품격(品格)

몇 해 전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또한 지난해 변호사의 일상과 애환을 그리는 ‘굿파트너(good partner)’라는 TV드라마가 높은 시청률로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지상파 방송 사극 ‘옥씨부인전’에서 오늘날 변호사와 비슷한 외지부(外知府)의 활약으로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

많은 변호인들이 연일 방송에서 의견 제출과 기자회견 뉴스가 많아짐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매순간 하는 말과 언어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일 것이다.

대인관계나 직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어려움보다 인간관계에 의한 갈등과 충돌로 이직을 더 많이 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처럼 말은 전달과정에서 오해도 낳고 이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흔히 우리는 천 냥 빚도 말 한마디로 탕감할 수 있다고 한다. 역으로 세치의 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모임이나 음식점에서 옆 좌석의 대화만을 들어보고도 어느 모임인지 사용하는 언어의 품위를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군주제하에서도 ‘사간원(司諫院)’이라는 기관을 두어 왕에게 올바른 말을 진언하여 바른 정사를 펼칠 수가 있었다. 왕조시대에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옛말이 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를 임금님 그리고 스승님과 동일시 생각했던 것 같다.

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무한 사랑과 존경의 대명사로 종종 인용되는데, 미국 건국아버지라고 칭송을 받은 토마스 제퍼슨이나 음악의 아버지는 헨델이며, 음악의 어머니는 바흐라고 칭한다.

하지만 영혼 없는 대상에 잘 못 인용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자아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수년전 다모(茶母)라는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주인공에게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고 했던 말이 최고의 명대사로 회자되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을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말과 언어를 기본으로 하여 살고 옷을 입으면 그것이 작게 이어지면 속담이요, 시(詩)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길게 이어지면 담론, 수필, 그리고 소설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마케팅을 잘한 사람은 말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반대로 고객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더 우수한 생산성을 발휘한다고 한다.

매일 보고 읽는 신문(新聞) 역시 본다는 뜻이 아니고 듣는다고 하는 들을 문(聞)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제 현수막 관련 조례가 정비되어 어느 정도 무분별한 게시는 정화가 된 듯 보이나 아직도 청소년을 동남해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섬뜩한 문구도 간혹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의 품격 없는 언어가 상대 진영에게는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적잖은 실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어 행복하다고 한다. 지금의 엄동설한 한 겨울은 곁에 있다고 해서, 곧 올 봄은 보다에서, 여름은 열매에서, 가을은 추수하는 가을에서 그 어원을 찾는 경우도 있다.

이제 민족이 대이동하게 될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본디 설이라는 말에는 으뜸, 원단(元旦)이지만, ‘삼가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운 일가친지들이 모임 것이다. 부디 몸뿐만 아니라 말과 언어도 취사선택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취직은 언제 하느냐’ ‘결혼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자녀는 언제?’ 등의 대화는 젊은 세대들에게 상당히 부담되는 언어로 금기시 된지 오래이다.

아울러 가까울수록 충고, 조언, 비판, 판단 등의 말은 신중을 기하여 을 사년 새해 벽두부터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품격 있는 덕담으로 용기를 불러 넣어 복된 을사년(乙巳年) 한해가 되길 희망해 본다.

독자투고

청소년 도박 사회적 관심 필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이 스마트폰을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온라인 게임 광고, SNS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하고 또래 집단과 어울리기 위해 도박사이트를 검색해보거나 초대 링크를 받아 접하면서 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단순

온라인 게임으로 생각하기 쉬워 도박에 쉽게 빠져드는 원인이 아닐까.

청소년들은 충동적이면서 통제력이 낮아 한번 온라인 도박을 접하면 ‘도박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음주, 흡연 등과 같은 비행 행동과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면 또다시 도박을 하기 위해 다른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데 있다. 청소년 인터넷 도박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관

심을 갖고 인터넷 도박 위험성을 알려주어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을 치유할 시설 확보와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에 대한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만이 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김만중 <장흥경찰 관산파출소 경장>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